

임시회 첫날부터 제2공항 ‘난타전’

어제 제393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홍명환 의원 “도지사 일방 발표, 도민 갈등 부추겨”
원 지사 “무산 시 대안 없어... 대통령이 결정해야”

제주도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로 난타전을 벌였다.

17일 열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2공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원 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제2공항 의견 제출 과정을 추궁했다.

홍 의원은 “도민의견 수렴 절차까지 잘 왔는데 원 지사가 지난 10일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더 증폭됐다”면서 “(국토부로부터 의견을 요구 받았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 전달해야 하는 데 (이런 과정 없이) 느닷없이 입장을 밝혀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2공항 건설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성산을 피해 마을 주민의 경우 건설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됐다는 원 지사의 주장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피해 마을 5개 중 2개 마을은 찬성 의견이 더 높다”며 “반대 의견이 높은 마을만 꼭 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반박했다. 또 원 지사는 “국토부가 의견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지사의 견해를 전달한 것 뿐”이라며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했다.

의견 제출 과정에 대한 원 지사의 답변을 두고 홍 의원이 “국토부와 도가 짝짜미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원 지사는 “국토부가 짜고 칠 정

도의 책임감이 있으면 좋겠다. 제2공항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6년간 제주도와 국토부가 함께 추진한 일”이라며 “(제2공항을) 무산시키면 공항의 안전 문제와 청년세대 미래, 제주경제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제2공항을 할지 말지) 대통령이 죽어든 살리든 하라”고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도의원들 간 공방도 오갔다.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흥·대륜동)과 강중룡(서귀포시 송산·효돈·영전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도내에서 제2공항(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되고 정치권과 도민사회에서도 우호적 여론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도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밝힌 것은 국토부 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송창권 의원은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겨냥해 “원 지사가 도민의 뜻에 정면 반대 독선적인 언행을 하는데도 그저 ‘원비어천가’만 부르고 있는 것이냐”며 도의장이 정당한 권한을 활용해 제주도 의견 제출에 항의한 것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 홀로 의정정치’라며 때를 쓰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상민기자



17일 열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홍명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119 출동 한층 더 빨라진다

조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

제주에 ‘데이터 기반 조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이 구축돼 119 소방차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시연회’를 18일 119종합상황실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시연회는 제주종합경기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 인명대피, 초기 진압 등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119종합상황실 전광판을 통해 선보인다.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사업은 ‘조정밀 위치정보’ 기술을 활용,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아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관 협업 사업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긴급출동

차량에게는 최적 경로가 안내돼 출동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또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구급차 단말기를 통해 인근 병원들의 실시간 병상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신속히 옮길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는 앱을 통해 긴급출동 차량의 실시간 이동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지사는 “사물인터넷 데이터 기반을 통해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전국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제주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자치도지원위 19일 제주서 회의

정 총리 주재...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확정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1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이날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서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청정제주 다채로운 특별기획 행사를 준비한다.

세션 참여 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포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forum.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민기자

들에게 분권 시범도시와 국제자유도시의 취지를 살릴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과 제주의 현안에 대한 정책설명의 자리로 활용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취지와 목표를 잘 살려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재정분권이나 물류개선이나 산업 특례 같은 큰 틀의 방향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시에는 새롭게 도입했던 제도들이 오히려 제약하고 그에 대한 대안과 논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주지원위 심의·의결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제16회 제주포럼 6월 24일 개막

‘지속가능 평화, ...번영’ 주제
26일까지 표선 해비치호텔서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평

화, 포용적 번영’을 주제로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을 6월 24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촉발된 경제, 기후 변화, 북핵 등의 복합적인 위기(multiple crisis)를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이라는 주제에

맞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제주포럼 조직위원회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포럼 세션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며 세션 기획자들은 제주포럼 의제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도와 제주포럼조직위는 홀로그램 VR 및 AR 등 팬데믹 시대를 맞아 주목받는 다양한 비대면 기술 등을 접목한 40~50개 세션을 운영할 예

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포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학술회의 방식의 세션 이외에도 사전 기자회견, 한국전쟁 기념행사, 청년의 날,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특별기획 행사를 준비한다. 세션 참여 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포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forum.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민기자

한리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한 제주’ 함께 지켜요! 방역수칙

- 첫째,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는 자주 환기해 주세요.
- 둘째,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는 예의를 지켜주세요.
- 셋째, 30초 이상 꼼꼼하게 비누로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 넷째,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해 주세요.
- 다섯째,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가족 모두 예방접종을 하세요.

도민 한명 한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배려하고,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따뜻한 마음의 메시지



사랑합니다